

시의회 윤리특위, 첫 시험무대 올라

구성되자마자 공천 비리연루 시의원 형사처벌... 내일 정례회 폐회식 전 검토

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위원장 이윤원)가 첫 시험무대에 올랐다.

친박연합의 공천비리의혹과 관련, 대구시의회 주모의원이 형사처벌 됐기 때문이다.

주 의원은 지난 6·2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 공천을 받으면서 친박연합

대표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.

주 의원은 친박연합의 대구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돼 활동중이다.

시의원이 비례에 연루돼 물의를 빚자, 대구시의회 윤리특위는 특위 소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

이윤원 위원장은 오는 17일 정례회

폐회식에 앞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이 위원장은 “지난 10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,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면서 처음 열리게 될 윤리특위인데, 자료 등 사례들을 찾아보고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볼 방침”이라고 설명했다.

대구시의회는 지난 10일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했으며,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7명으로 돼 있다.

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2012년 6월30일까지 운영된다.

이 위원회의 활동은 △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△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△ 기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등을 심사한다.

박무환기자 pmang@kyongbuk.co.kr
20.3 X 7.2 cm